

중국 화학경기 ①

미국 · 일본 화학시장 위협 “기세등등”

SARS 영향 불구 하반기 7.2% 성장전망 ... 인프라 · 세금우대로 만회

중국은 세계 경기침체 및 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확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경제 성장 뿐만 아니라 화학산업 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SARS 여파로 중국의 경제 성장세는 잠시 주춤했으나 2003년 하반기부터 다시 회복세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기초화학 제품 특히, 플라스틱 수입강세가 지속되고 다국적 화학기업들의 집중적인 투자대상이 될 전망이다.

WHO(World Health Organization)는 2003년 6월 말 중국을 SARS 위험지역에서 해제했다. 2002년 1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SARS 관련 사건 중 62%가 중국에서 발생했으나 2003년 7월 말 마지막 SARS 감염환자가 보고 되면서 중국은 384명의 목숨을 앗아간 SARS의 진압 캠페인에 중지부를 찍었다.

중국 정부는 SARS 발병 지역을 고립시키고 여행을 제한하는 등의 대대적인 SARS 진압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SARS 확산을 성공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SSB(State Statistical Bureau)는 SARS가 특히 Beijing 및 Guangzhou 지역을 크게 강타했으나 중국이 바이러스 확산을 철저히 진압하는데 성공했다고 보고 있다.

SARS의 영향으로 중국의 2003년 경제 성장률은 1/4분기 9.9%에서 2/4분기 6.7%로 하락함으로써 199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ADB(Asian Development Bank)는 2003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2002년 8%에 비해 낮은 수준인 7.3%로 0.2% 하향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GDP 성장률인 7%보다 높은 수준이다.

중국은 미국-이라크 전쟁 및 세계적인 경기둔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했으나 소비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SARS로 인한 경제적, 정치적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후 진타오(Hu Jintao) 중국 국가주석 및 원 자바오(Wen Jiabao) 부총리 주도 아래 인프라 구축, SARS 관련 세금우대 및 저금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SSB에 따르면, 중국은 자동차, IT 및 직물 등 화학제품 소비가 많은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2003년 상반기 제조업 생산량이 16.2% 증가함으로써 경제성장 전망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직까지 중국 정부가 2003년 상반기 화학제품 소비량에 관한 자료를 밝히지 않고 있어 SARS가 중국 화학 시장에 입힌 양적 피해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Sinopec의 뒤를 잇는 중국 최대의 화학기업인 PetroChina에 따르면, SARS의 영향으로 중국의 2003년 2/4분기 화학제품 수요가 급감했으며, 아시아 지역의 기초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가격 또한 5월 중순 급락세를 보였으나 이후 회복세로 전환해 현재 5월 가격 이상의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2003년 상반기 중국의 플라스틱 수입량이 감소한 것으로 볼 때 전반적인 수요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11/05>